

오늘도 권영수(52)씨는 검은 안경을 쓴 채 조계사 법당으로 들어섰다. 허한 지팡이로 더듬지 않아도 익숙한 길이다. 꽤 높은 법당 문턱도 쉽게 뛰어산다. 법당 한켠에 자리를 잡은 권씨는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 온화한 모습이 보인다. 마음으로 보는 부처님은 늘 웃고 계신다.
 "내생에 다시 태어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해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받고자 합니다. 급성에서 여러사람들에게 진 빚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소서"
 말없는 사람의 눈보다 장남인 권씨가 가진 마음의 눈은 훨씬 밝다. 권씨는 날마다 조계사 앞길에서 작은 바구니를 들고 동냥을 하는 시각장애인이다. 13년간 그렇게 조계사 앞길을 지키는 권씨는 어느새 조계사의 '명불'이 되었다. 매일 저녁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는 권씨는 그날 하루동안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받은 돈의 일부를 불전함에 넣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권씨는 소책자마



음과 연꽃마을에도 매달 조금씩 후원금을 내고 있다. "밤을 더 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는 권씨의 얼굴은 어느 갑부보다 행복감에 차 있다.
 권씨가 처음 조계사를 찾은 것은 13년 전. 어렵게 결린 안질로 두눈을 실명할 뻔, 굉장치 않은 집안사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퍼 떠올던 시절이었다. 우연히 찾은 조계사에서 들려오던 법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 권씨는 그 후 조계사에 신도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다.
 86년에는 해인사 일타스님에게 '일봉(一奉)'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은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권씨의 마음을 눈치챈 조계사 신도 감무씨의 권유에 의해서다. 최근 권씨는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기증 신청등록도 마쳤다.
 "눈은 기증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김정은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도심포교당 운영난 심각

일산 마하사 문닫아... 성수동 능인정사 신도 격감 임대료등 운영비 부족... 장학금·이웃돕기 등 차질

IMF 1백일을 넘기며 도심포교당의 운영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서울 성수동 능인정사(주지법경)는 최근 신도수가 40% 줄었다. 법회마다 법당을 채우던 신도의 절반이 빠져나가자 사찰 수입도 그만큼 줄어 매년 실시하던 불우이웃돕기와 노인정회원, 불우청소년 장학금 수



○13일 종로일대대에서 열린 '자비의 탁발'에 시민들이 참여해 삼짚돈을 회시하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 지길 염원했다. (사진=고영배기자)

"소욕지족 생활정신 실천합시다"

13일 조계사에서 '자비의 탁발' 선포식 19일까지 전국 교구본사서 탁발행사

제2회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13일 조계사에서 선포식과 함께 시작됐다. 부처님 열반재일인 13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 교육위원장 암도스님, 포교위원장 성타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등 중앙종무기관장과 종단 중진 스님 3백여명과 신도 등 2천여 불자가 참가했다. 선포식에서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우리 출가수행자들이 거리로 나서 자비로운 보시와 소욕지족의 생활정신을 묵연히 호소하고자 한다"며 "불자들이 사회를 부처님 정법으로 변화시켜주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포식을 마친 스님들은 조계사를 출발, 종로2가와 탑골공원 구간을 왕복하며 행인들을 대상으로 탁발을 했다. 자비의 탁발은 금산사(17일)등 지방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에서 19일까지 이어진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따스한 봄햇살에 비친 부처님의 미소가 한층 정겹게 느껴지는 4월. 산과 들이 어우러진 넉넉한 내포명의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는 산사의 '백제의 미소'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온화한 미소로 정경이 나타나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단아하면서도 기품있는 대웅전(국보 제49호)으로 유명한 수덕사, 개성사를 찾아 갑니다. 이 단답한 시절에 마음을 활짝 열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화사한 계절에 온화하고 파사로운 백제인의 숨결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수덕사, 개성사, 서산 마애삼존불
 ◇출발: 4월12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정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조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조여행사

범행스님 선학원 이사 사임



팔달선원 분원장직도 현재 선학원 이사인 범행스님(팔달선원주지)이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직과 팔달선원 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범행스님은 10일자로 재단 사무국에 이사직과 분원장직 사임을 각각 제출했다. 스님은 팔달선원의 분원장은 상좌에게 승계하고 이사직은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선학원은 이사회를 통해 범행스님의 이사직 사임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분원장직은 재단이사장의 결재로 범행스님이 지명하는 도제에게 승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회의는 종정 원하스님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원하스님의 종정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까지 사표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지난 6일 해인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총무원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원로회의는 종정 원하스님이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원하스님의 종정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4월까지 사표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중앙신도회 창립 1년 2·3년 법보시불서 실태조사 8년 행자에서 스님되기까지 11년

최고의 기술로 신뢰받는 기업·효성중공업

전력사업부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 및 승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전사업부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선박해양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부
 최첨단 MECHATRONICS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건설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에 내놓아도 경쟁력있는 기술,
 우리 산업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술 -
 효성중공업은 선이 굵은 첨단 기술로
 우리 중공업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Tel. 02)707-6114 Fax. 02)714-0707
 http://www.hico.co.kr · 크로바서비스: 080-024-6282